

B506

대호 간척지 수변부에서 탈염에 따른 식물군집 구조의 변화

김미경*, 조강현
인하대학교 생물학과

서해안 간척지에서 간척 후 탈염이 진행되면서 식물군집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간척 후 14년이 경과한 대호 간척지의 수로와 유수지에서 물의 염분도는 1-6 ppt로서 기수이었다. 간척지 수변부의 토양에서 조사지점에 따라서 염분도의 변이가 매우 컸다. 특히 지형이 높고 건조한 지역에서 토양의 염분도, 전기전도도 및 유기물함량은 지형이 낮고 장기간 침수된 지역보다 높았다. 대호 간척지 수변부에서는 염생식물, 기수 및 담수 수생식물, 육상 중생식물 등의 다양한 식물이 출현하였다. 수변부 식생은 갈대가 호안을 따라 넓게 분포하였고,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애기부들이, 물위로 노출되고 토양 염분도가 높은 지역에서 칠면초, 통통마디, 나문재 등의 염생식물이 분포하였다. 또한 수심이 약 50 cm로서 얕고 개방된 수역에서는 기수에서 생육하는 줄말이 넓게 분포하였다. 대호 간척지에서 수변부 식생 구조는 일차적으로 토양의 염분도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토양의 유기물함량과 pH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대호 간척지에서 수변부 지형의 높이와 침수기간에 따라서 탈염의 진행속도가 달라지고, 이 염분도 구배에 따라서 식물군집이 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B507

Phytosociology of the *Quercus* Forests on Mts. Palgong, Kumo and Hwangak around the City Areas of Taegu, Kumi and Kimchon

송종석*, 노광수¹, 정화숙², 송승달³
안동대학교 생물학과*, 계명대학교 생물학과¹, 경북대학교 생물교육과², 경북대학교 생물학과³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classify and describe the *Quercus* forests on Mts. Palgong, Kumo and Hwangak around Taegu, Kumi and Kimchon city areas in Kyongpook Province, Korea by RA(reciprocal averaging) ordination and the methodology of the ZM school of phytosociology. A temporary vegetation table was prepared by the RA ordination. As a result it showed that the RA ordination on the first axes is very applicable for selecting the character and differential species of vegetation units of the *Quercus* forests. For the establishmet of new vegetation units, the floristic composition of the *Quercus* forests were compared with that of the similar vegetation units of the other mountainous areas of Korea, considering the candidates of the diagnostic species derived from RA ordination. As a result, the forest vegetation was classified into the two new associations and a community: Syneilesio-Quercetum serratae, Ainsliaeo-Quercetum mongolicae and *Quercus mongolica-Acer tschonoskii* var. *rubripes* community. It is inferred that the Lespedezo-Quercion serratae and the Rhododendro-Quercion mongolicae correspond to the cool-temperate forests of the southern type and the northern type(Honda, 1922), respectively, in the Korean Peninsula.